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UN DAY 공휴일 지정 제안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을 위한 대한노인회와 부영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으로 1943년 카이로 회담과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으로 독립 서광이 비쳤고, 1947년 UN한국임시위원단의 설립으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1950년 6·25전쟁시 전투 16개국 UN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의료 6개국, 물자지원 38개국을 포함한 총 60개국 UN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군정으로, 군정에서 자주적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마다 UN과 함께했습니다.

UN에 감사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미래입니다.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부영그룹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 현재까지 총 134억 원 지급)
-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 첫 시행 후 사내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24년 28명 출생 → 25년 36명 출생, 출산율 28% 증가)
-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 생산인구수 감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와 함께 UN DAY 공휴일 지정 제안



- UN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UN의 승인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합법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6·25전쟁시 UN의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지원 38개국 참전으로 오늘날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6·25전쟁 참전은 UN 창설 후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으로 UN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UN군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참전해준 60개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국가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